

#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33호 (2014-12) 발행일 : 2014. 03.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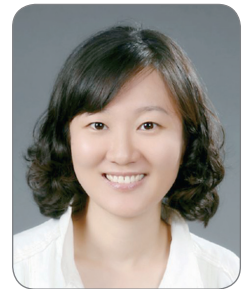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노년기 평생교육 현황과 정책과제\*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율은 7%로 우리나라 노년층의 대다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이며 고령층의 향후 참여 희망률도 15%로 높지 않음

노년층의 평생교육 지속참여율은 높은 편이며, 일부 기관에서 신규참여를 원하는 노년층이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함. 최신기 기 사용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수요 증가, 자발적 프로그램 활성화 등 노년기 평생교육의 내용 및 구성의 변화도 확인됨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년층은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공동인식 하에 정부의 노년기 평생교육의 관점 정립이 필요하며, 노년기 평생교육 접근성 확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황남희  
인구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1. 노년기 평생교육의 필요성

#### ■ 고령화시대 노년기 사회참여의 중요성이 증가함

- 보건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은퇴 연령의 변화는 적어 노년기 여가시간이 길어지고 있음
  - 이 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지가 점차 중요해짐
- 평생교육, 자원봉사, 취미여가 등 사회참여는 노인 개인적으로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하며,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음

\* 본 원고는 '이윤경·염주희·황남희·양찬미(2013). 평생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보완 및 재구성한 것임을 밝힘

- 행복한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현대는 기술과 지식, 문화의 변화 속도가 빨라 청년기 교육만으로 사회 적응이 힘든 시기이며, 노년층의 교육 수준 향상과 노년층 집단 내 다양성 증가로 교육에 대한 욕구와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
    - 과거 노인 대상 평생교육은 어르신 한글교육만으로 한정적이었지만, 현재는 스마트폰 사용법, 인문교양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나타나고 있음
- 노년기 평생교육이 중요한 다른 이유는 근로능력과 근로의사가 있는 노년층 인적자원 활용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임
  - 저출산 · 고령화 진전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노인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인과 여성에 대한 재취업 및 직업교육이 요구됨
- 우리 정부는 국민행복과 100세 시대 사회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함
  -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는데, 제3차 기본계획(2013~2017)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4대 영역을 제시함
    - 대학중심 평생교육체계 실현, 온-오프라인 종합지원체계 구축,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 2. 노년기 평생교육의 개념과 범주

- 노년기 평생교육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노년학에서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노년교육 또는 노인교육, 노후교육 등을 혼용하며, 연구자에 따라 ‘노인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older adults)’ 만으로 한정하거나 ‘노인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older adults)’ 이나 ‘노인에 의한 교육(education by older adults)’ 을 포함시키기도 함
  - 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임
- 교육학에서는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학습영역을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으로 구분하고 있음
  - 형식교육(formal education)은 졸업장 또는 학위 취득과 같은 정규과정에 속하는 교육이며, 비형식교육(non-formal education)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모든 학습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스터디클럽 등이 해당됨
    - 양자 모두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교수과정이 포함되지만, 비형식교육은 학력 또는 학위 인정을 받지 않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무형식학습(informal learning)은 조직화된 교수활동 없이 학습자 스스로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모든 형태의 학습활동을 의미함
    - 참여 및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배우는 학습경험도 포함됨

〈표 1〉 학습영역 분류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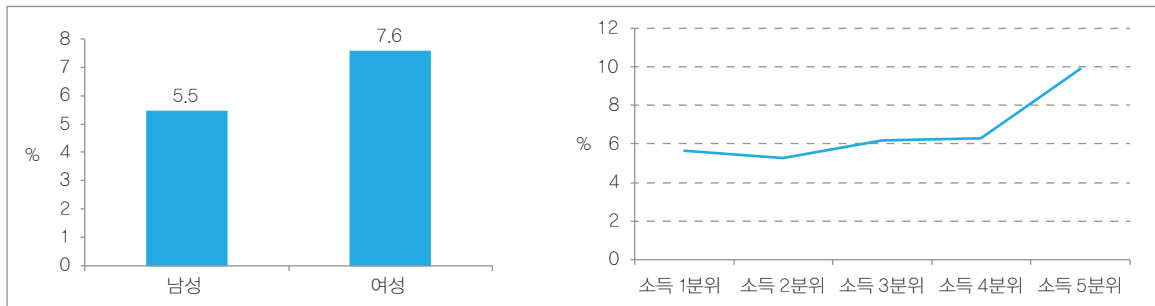
구분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
구조화된 교수활동	○	○	×
학력(학위) 인정	○	×	×
교육기관/형태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 사이버원격대학 등	학원수강, 개인강습, 인터넷 강의, 스터디클럽 등	주변 지인의 도움 및 조언을 통한 학습, 인쇄매체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학습 등

- 본고에서 노년기 평생교육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형식교육으로 설정함

### 3.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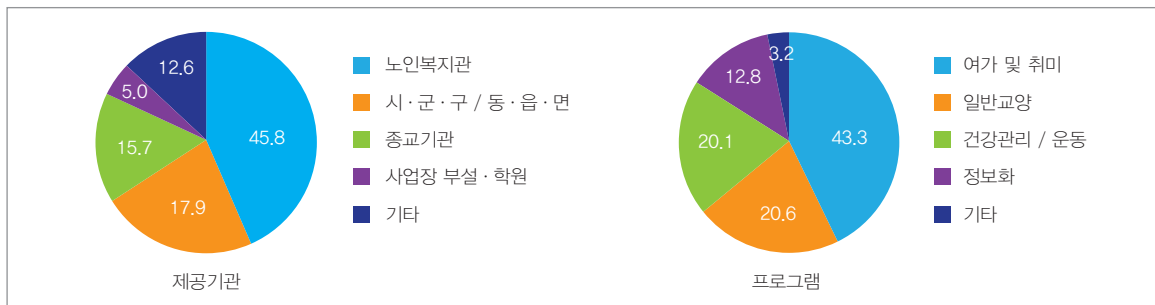
- 65세 이상 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약 7%로 우리나라 고령층의 대다수는 현재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sup>1)</sup>

[그림 1] 성별 및 가구소득수준별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율



자료: 정경희 외(2012), 2011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2] 노인 대상 평생교육 제공기관 및 프로그램



주: 제공기관 기타에는 노인교실, 경로당, 대학(원)부설, 사업체부설, 학원 등이, 프로그램 기타에는 자원봉사자교육, 취업 및 직업교육, 노후준비 교육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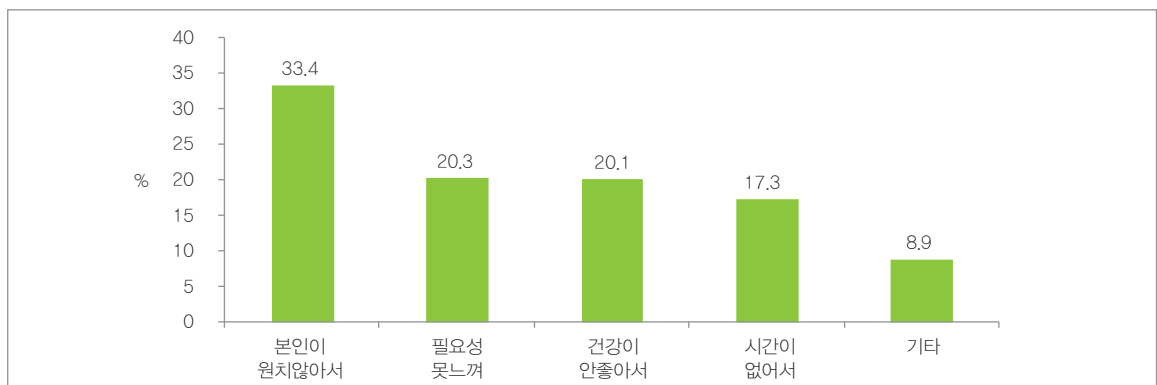
자료: 정경희 외(2012), 2011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별로는 여성, 소득수준 및 건강상태가 좋은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음
- 연령집단별로는 65~69세 7%, 70~74세 8%, 75~79세 7%, 80~84세 5%, 85세 이상 2%

1) 정경희·오영희·이윤경·손창균·박보미·이수연·이지현·권중돈·김수봉·이소정·이용식·이윤환·최성재·김소영(2012), 2011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교육 참여빈도는 주 2~3회가 45%로 가장 많고, 주 1회 37%, 주 4회 이상 14%, 월 1회 2%
- 교육 제공기관은 노인복지관 46%,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 18%, 종교기관 16%, 사설문화센터 및 학원 5%
- 참여 프로그램은 여가 및 취미가 43%로 가장 많고, 일반교양 21%, 건강관리·운동 20%, 정보화 13%
-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이며, 향후 참여 희망률도 약 15%로 낮은 수준임
  - 약 54%가 교육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해서, 상당수의 노년층은 평생교육을 받고 싶지 않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 그 다음 건강상 이유(20%)와 시간부족(17%)이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임
  - 참여희망자가 선호하는 평생교육 제공기관은 노인복지관을 47%,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 28%로 응답하여 현재 평생교육 참여자와 유사함
    - 평생교육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노년층은 동일 기관에서 참여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특성일 수 있음
    - 그러나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의 선호를 희망하는 비율이 현재 참여자에 비해 10%p 더 높다는 점은, 교육 제공기관의 친밀성과 접근성이 응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짐
  - 참여희망자가 선호하는 교육 참여빈도도 주 2~3회 53%, 주 1회 30%로 나타나 현재 교육 참여빈도와 유사함
    - 희망 참여빈도가 현재 참여자의 빈도에 비해 주 2~3회는 8%p 높고, 주 1회 7%p 낮아 동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횟수 증가에 대한 욕구를 엿볼 수 있음
    -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여가 및 취미 39%, 건강관리·운동 20%, 일반교양 18%, 정보화 18%

[그림 3] 노년기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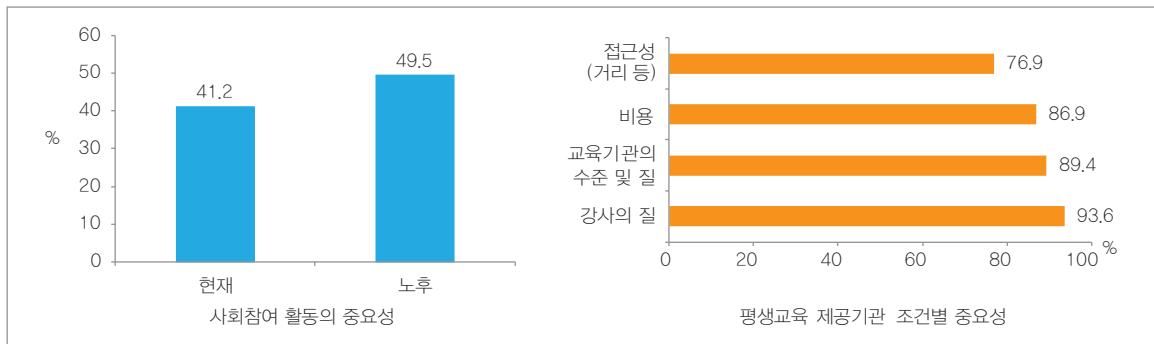


자료: 정경희 외(2012). 2011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는 예비노년층(50~64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4% 수준
  - 예비노년층은 현세대 노년층에 비해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서 평생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함

- 현재 삶보다 노후 삶에서 사회참여활동의 중요성 더욱 높게 인식함
  - 현재 삶에서 사회참여활동이 중요하다 인식은 약 40%, 노후 삶에 있어서는 이 보다 높은 50%로 확인됨
  - 현재 예비노년층이 노년층으로 진입될 경우, 약 1/2이 사회참여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실제 사회활동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평생교육 제공기관의 조건에서 강사 및 교육기관의 질 등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함
  - 제공기관의 조건의 중요성은 강사의 질 94%, 교육기관의 수준·질 89%, 비용 87%, 접근성 77%
  -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은 1순위 건강관리(64%), 2순위 여가 및 취미(32%), 3순위 노후준비(24%)로 현세대 노년층에 비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음

[그림 4]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활동 및 평생교육 제공기관 조건별 중요성



자료: 정경희 외(2010),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개인의 경제수준 및 교육수준, 다른 사회참여 활동으로 확인됨
  -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요인을 살펴보면<sup>2)</sup>, 월평균용돈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생교육 참여가능성이 증가함
    - 대부분의 노년층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비용이 소액이라는 점에서, 노년층은 프로그램 이후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및 소모임, 식사 등의 소요비용의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평생교육 참여자의 1인당 연간 투자비용이 평균 21만원<sup>3)</sup>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함
  -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하고 있는 단체활동 수가 많을수록 평생교육 참여가능성도 증가하여 사회참여활동 간에는 대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소수의 노년층은 다채로운 사회참여활동을 즐기며 인생후반기를 활기차게 보내는 것으로 보여짐
  - 반면에 취업중인 경우 평생교육 참여 가능성은 감소함
    - 시간자원의 제약 상 노동-여가시간은 대체관계가 존재함<sup>4)</sup>

2) 2차 및 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패널로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

3)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한국 성인의 평생교육실태'에서 55~64세의 비형식교육 투자비용에 해당됨

4) 경제학 관점에서 여가시간은 효용(utility)을 증가시키지만, 노동시간은 감소시킴

## 4. 노년기 평생교육 제공기관

### ■ 평생교육 제공 우수사례 10개 기관<sup>5)</sup>을 통해 공급측면에서 노년층의 평생교육 현황을 파악함

○ 노년층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평생교육법이며,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60세(65세) 이상<sup>6)</sup> 노인 대상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노인교실, 2차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있음  
 - 2012년 12월 31일 기준 노인교실은 1,335개소, 노인복지관 300개소, 경로당 62,442개소임<sup>7)</sup>

○ 평생교육법에서는 대상을 연령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sup>8)</sup>’고 명시하여 노년층도 교육대상임을 알 수 있으며, 교육 제공기관은 정규과정 학교 외에 직장,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함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3)에 의하면<sup>9)</sup> 연령별로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 제공기관의 차이가 있으며, 청장년층은 학원, 중고령층은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비율이 높음
- 청장년층의 평생교육은 직업과 관련성이 높아 민간부문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였지만, 중고령층은 정책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및 운영되고 있기 때문임

[그림 5] 비형식교육 평생교육기관



주: 1) 문화센터, 산업체, 백화점 등  
 2) 산업교육기관, 학교실습기관으로 기업 또는 노동부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p.55에서 재구성

### ■ 노년기 평생교육의 내용 및 구성 변화

○ 노년층의 평생교육 관심영역이 변화되어 컴퓨터와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등 최신기기 사용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과거에 비해 노년층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지며, 향후 노년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학습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평생교육 제공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방향이 소수의 수동적인 학습프로그램에서 평생교육 참여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수의 프로그램 개설과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전환됨

5) 사례연구 기관은 다음과 같음. 양재노인종합복지관,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은평구 평생학습관, 주안도서관, 불광1동 자치회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사회지도자교육센터, 정릉평생대학,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센터, 풍월당아카데미  
 6) 노인교실과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임  
 7) 보건복지부(2013), 노인복지시설 현황  
 8) 평생교육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제①항  
 9) 직장을 제외한 참여 교육기관을 비교분석 한 것임.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 동아리 등 자발적 프로그램 활성화 및 특별프로그램 형태의 아카데미 강좌가 증가하고 있음
- 강사 또는 봉사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재생산하는 사례와 함께, 뜻을 같이하는 교육이수자들이 협동조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지혜로운학교-U3A 서울)을 설립하는 활동사례 등이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남
- 평생교육 지속참여와 함께 다수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향이 포착됨
  - 신규참여자 보다 지속적인 교육참여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평생교육 참여자는 1인당 평균 4개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신규참여를 원하는 노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함
- 노년층 대상 수업 외에도 일반성인 교육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노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외에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동년배 집단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5. 정책과제

-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년층은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공동인식 하에 정부의 노년기 평생교육 관점 정립
  - 전 생애발달 관점에서 노년층은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배우는 학습으로서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함
    - 과거 노년층의 평생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 여가복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수준이었음. 현재 이러한 시각은 점차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년층은 필수 교육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지배적임
    - 따라서 근원적으로 노년층은 시혜 대상이자 사회적 부담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노인복지법과 평생교육법에 의해 정부주체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분리되어 있어 노년기 평생교육은 여가 복지로 접근 경향이 강함
    -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리되는 교육기관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에서는 대상이 범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노년층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의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의 여지<sup>10)</sup>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년층 인식 전환 및 평생교육 접근성 확대 방안 마련
  - 노년층에게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7년 이후 매년 발표하는 평생학습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은 25세에서 64세 미만임



○노년기 평생교육이 노년층의 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내용과 교육매체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함

- 건강상의 이유로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년층을 위해 보건정책과 연계하여 맞춤형 가정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차원에서 예비노년층의 건강관리 및 운동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보급
- 시간부족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및 TV매체 활용 등 교육전달매체를 다양화하고, 일자리 방문 교육프로그램의 활용을 고려

■ 평생교육 공급주체와 내용 등의 다양화로 민간과 공공의 명확한 역할 분담체계 확립

○공공부문에서 노년층 평생교육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 지며, 민간부문에서 노년층의 다양한 교육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가 필요함

○공공부문에서는 노년층 대상의 연령차별적인 프로그램 운영(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을 연령통합적인 성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고려

■ 노년층 대상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전문인력 양성 고려

○노년층은 기존의 주교육 대상인 청년층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며, 특히 생애주기 특성상 건강수준과 교육에 대한 심리상태, 관심영역 등이 상이함

○노년층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교육하는 자에 한해 노년층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 추가이수제도 도입 고려

- 관련 교과목은 노인복지론, 노인교육론, 노년학, 노인심리, 노인상담 등이 있음

집필자 | 황남희 (인구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문의 | 02-380-8357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